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동병상련’

▶양현종
투구 밸런스 잃어 1승 1패 방어율 4.73
◀안치홍
타격 포인트 잃어 올 시즌 홈런 3개 뿐

KIA 투·타의 미래 안치홍·양현종 컨디션 찾기 분투

KIA 투·타의 미래 안치홍과 양현종이 잃어버린 밸런스와 히팅 포인트 찾기를 위한 분투를 하고 있다.

12일 롯데와의 경기에 앞서 진행된 훈련 시간, 선동열 감독이 직접 불펜으로 향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선 감독의 발길을 이끌어낸 선수는 백넘버 54번 양현종.

선발후보로 꼽힌 양현종이지만 어깨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진데다 좀처럼 밸런스를 찾지못하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양현종은 3차례 선발 등판을 비롯해 올 시즌 16경기에 나와 4.73의 방어률로 1승1패2홀드를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다.

제구는 더욱 불안해졌고 양현종의 최대 강점으로 꼽혔던 구위도 예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좌완 에이스의 추락에 선 감독의 마음도 급해졌다. 직접 불펜까지 나가 양현종의 훈련을 지휘했지만 선 감독의 표정은 좋지 못했다. 선 감독은 “밸런스가 좋지 못하다. 캠프 때처럼 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 피칭할 때 축 이동이 일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투수 명조련사로 소문난 선 감독이지만 딱히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선 감독은 “밸런스는 본인이 찾는 수밖에 없다. 변화구를 익히면서 밸런스가 무너진 것도 있다. 나도 일본에서 비슷하게 고생을 한 적이 있다. 7~8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선발 임무를 시작했던 2009년 양현종은 3.15의 방어율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승수(12승)를 찍으면서 KIA 마운드의 새 전력으로 우뚝 섰다. 2010년 그 기세를 이어 16승을 거두며 다승 공동 1위에도 올랐다. 하지만 변화구 장착 과정에서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안치홍은 히팅 포인트를 놓고 씨름중이다. 지난 시즌 처음으로 3할 고지를 밟았던 안치홍은 올 시즌에도 3할에 가까운 타율로 30타점을 기록하는 등 괜찮은 활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안치홍은 입단 첫해 14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신인 답지 않은 파워를 과시했다. 한국시리즈 최연소 홈런 주인공 자리까지 차지하며 한방으로 팀 우승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2010년 8개의 홈런 그리고 지난해에는 5개의 홈런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정교함에 초점을 맞추면서 안치홍의 타격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올 시즌에도 3개의 홈런에 그치고 있다.

장타 양산을 위해 안치홍은 히팅 포인트를 앞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2일 훈련에서도 안치홍은 의도적으로 앞쪽에서 공을 때려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타격을 담당하고 있는 이순철 수석코치는 “처음에는 본인도 답답해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훈련을 하면서 장타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배워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안치홍은 시즌을 앞두고 장타에 대한 욕심을 보였다. 캠프에서 체력적인 부분에 신경을 썼던 이유도 장타때문이었다. 내친김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도 시도하고 있다.

안치홍은 “습관때문에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몸에 익어가고 있다. 2009년에도 이런 타격으로 홈런을 10개 이상 때려냈었다. 좋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2009년의 좋았던 기억을 되살리려는 양현종과 안치홍의 변화 성공여부에 따라 KIA 성적에도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동열 던지고 이만수 받는다

한·일 프로야구 레전드 매치 명단 확정
20일 오후 6시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려

투수 선동열

포수 이만수

한국과 일본의 프로야구 전설의 꿈의 대결인 한일 프로야구 레전드 매치에 출전한 2012 한일 대표팀 명단이 확정됐다.

20일 오후 6시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이번 매치에서 한국은 김성근 고양 원더스 감독이 단장을 맡고 김인식 KBO 기술위원장이 지휘봉을 잡는다.

선발로 나설 KIA 선동열 감독을 비롯해 김시진(넥센), 이만수(SK), 김기태(LG), 한대화(한화), 류중일(삼성) 등 6개 구단의 감독이 선수로 나선다. 이외에 이종범, 양준혁 등 22명이 한국대표로 선정됐다.

일본은 아시아 최초의 3000안타의 주인공 장훈씨가 단장을 맡고, 후지카 타이라 전 한신 타이거스 감독이 팀을 이끈다.

일본 최고의 마무리로 불리는 사사키 가즈히로가 선발로 출전하고, 통산 525홈런을 기록한 기요하라 가즈히로와 퍼펙트게임 투수 마키하라 히로미 등 일본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역대 선수들로 라인업을 구성한다.

이번 매치의 입장권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13일 오전 11시부터 판매된다. 입장권 가격은 각각 VIP석 8만원, 테이블석 6만원, 블루지정석 2만 5000원, 레드지정석 2만원, 옐로우지정석 1만 5000원, 외야 자유석 1만 2000원(청소년과 군경 6000원, 어린이 4000원)이다.

◇한국팀 명단

▲단장 = 김성근 ▲감독 = 김인식 ▲선수 = 선동열, 송진우, 김시진, 김용수, 조계현, 한용덕, 정민철, 이만수, 김동수, 김광수, 한대화, 류중일, 유지현, 김한수, 박정태, 김기태, 김성한, 이순철, 이종범, 양준혁, 전준호, 장원진

◇일본팀 명단

▲단장 = 장훈 ▲감독 = 후지카 타이라 ▲선수 = 사사키 가즈히로, 마키하라 히로미, 니시자키 유키히로, 쯔노 히로시, 카네무라 사토시, 무라타 쵸우지, 오치아이 에이지, 이토 츠토무, 후지모토 히로시, 기요하라 가즈히로, 코마다 도쿠히로, 이시게 히로미치, 하츠시바 키요시, 토마시노 겐지, 무라카미 타카유키, 후쿠하라 미네오, 타카하시 사토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말말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 선동열 감독, 11일 이틀 연속 비가 내리자.

▲1등하고 있는데 욕심도 많아 = 선동열 감독, 우천으로 윤석민의 등판이 밀리면서 삼성전 선발로 나오게 되자 삼성 류중일 감독이 안타까워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그럼 후배가 양보해야지 = 양승호 롯데 감독, KIA와 5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가을에 두 팀의 대결로 순위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선동열 감독이 양 감독의 고려대 후배다. KIA는 올 시즌 LG와 12경기를 치렀지만 롯데와는 7경기 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김)현수 좀 혼내주라고 하던데 = 훈련 시간에 나지완의 인사를 받은 롯데 양승호 감독, 무슨 얘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논란의 주인공인 나지완과 김현수는 신일고 선후배 사이. 양 감독은 신일고 야구부 창단 멤버다.

▲선 블록? = 앤서니, 소사가 폼 클렌징인 줄 알고 선 블록을 가지고 샤워를 하려했다고 놀리면서.

▲삼성 버스만 들어서면 비가 내려요 = 홍세완 2군 타격코치, 함평 2군 구장에 삼성 선수단만 도착하면 비가 내린다면서. 앞선 3연전에 이어 10·11일에도 삼성과의 2군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승호 감독 만난 나지완 “현수 좀 혼내줘요”

광주 FC, 이승기·박기동 앞세워 성남 공략

내일 K리그 21라운드
수비도 포백으로 전환

광주 FC가 14일 오후 5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성남 일화와 2012 K리그 21번째 대결을 벌인다.

양팀에게 모두 승리가 절실하다. 광주는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마지막 30초를 남기고 동점을 허용하는 등 부진한 경기력으로 순위 싸움에 비상이 걸렸다. 꼴찌 강원과 승점은 2점차 밖에 나지 않는다.

성남 역시 6경기 연속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면서 8강 진입에 빨간 불이 켜졌다.

9라운드 성남전을 시작으로 추락을 시작한 광주는 성남전에서 반등 기회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성남과의 원정경기에 앞서 5경기 무패행진을 달리며 승승장구 했었다. 하지만 성남을 상대로 역전패를 당한 뒤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 양팀은 선수단에 변화를 줬다.

광주는 수비라인을 조정했다. 쓰리백을 포백으로 전환한 광주는 실수가 잦았던 유종현과 임하람을 주전 멤버에서 제외시켰다. 발 빠른 안동혁을 오른쪽 풀백, 김수범을 왼쪽 풀백으로 전환하고 정우인과 박민을 수비수로 배치했다.

공격에서는 K리그 최장신 복이와 박기동이 투톱으로 나서는 대신 이승기를 왼쪽에 세우고 김동섭과 좌우 포지션을 수시로 바꿔가며 유기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우진, 임선영 등 백업 요원은 박현, 박정민으로 교체했다.

성남도 변화의 칼을 빼들었다. 고의적인 파울로 퇴장당한 주전 미드필더 윤빛가람과 무기력한 요반치치를 2군으로 내렸다. 부진한 플레이로 눈 밖에 난 한상운은 J리그 주빌로 이와타로 이적시켰다. 이 셋은 성남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했던 만큼 더욱 파격적인 변화다.

이승기, 박기동의 콤비 플레이에 광주의 기대가 크다. 긴 침묵을 이어오던 이승기는 20라운드 대구전에서 시즌 첫 골을 터트리며 기지개를 켰다. 단짝 박기동이 이승기의 골을 조력했다.

지난 시즌 박기동은 팀 최다 도움을 기록했고, 이승기는 박기동의 조력으로 8골을 만들어내며 신인상을 수상했었다.

하지만 박기동이 부상으로 시즌 초반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이승기의 득점포도 잠잠했다. 박기동이 살아나면서 이승기의 움직임도 날렵해졌다.

환상의 콤비 플레이가 성남전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오련 타계 3주기 ‘땅끝 바다 수영대회’

대한해협을 건너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했던 ‘아시아의 물개’ 고(故) 조오련 선수 타계 3주기에 맞춰 고향인 땅끝에서 ‘제3회 땅끝 바다수영대회’가 열린다.

조오련 땅끝 바다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009년 8월 타계한 조오련 선수를 추모하기 위해 다음 달 4~5일 땅끝 송호해변에서 수영대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영대회는 대회 최초로 10km 올림픽 종목을 신설했다. 3.3km, 500m 연령대별 개인전과 초(4학년 이상)·중·고등부로 나눠 열린다.

1200m(4인) 단체 릴레이전도 펼쳐진다.

참가비는 2만원이다. 접수마감은 오는 25일까지다.

조오련 선수는 1970년 방콕과 1974년 테헤란 아시아게임 수영 자유형 400m, 15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면서 아시아 물개라는 애칭을 얻었다.

국내 신기록만 50회, 평형을 제외한 전 종목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는 등 한국 수영계의 큰 발자취를 남겼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첨단고 볼링팀 이승우 코치 체육회 공로상

첨단고 볼링팀 이승우 코치〈사진〉가 제92회 대한체육회 창립기념 공로상을 받는다.

이 코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두며 체육발전에 이바지 공로로 12일 대한체육회로부터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코치는 지난 3일 태국 방콕에서 끝난 2012 세계 청소년 볼링선수권대회 감독을 맡아 종합우승(금5, 동4)을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은 지난 2008년 미국, 2010년 핀란드 대회에 이어 3연패를 달성했다.

국내대회에서도 첨단고의 우승질주를 이끌며 독보적인 지도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대회 7연패를 이룬 첨단고는 5월 대한볼링협회장배에서 금6, 은3개를 획득하며 전종목 석권을 이루는 등 올 시즌에도 연패행진을 이어가며 전국최강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한편 이 코치는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막한 2012 아시아 학생선수권대회 대표팀 코치로 출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세번째 산행 7월 19일(목) / 변산반도-능가산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 주 최 |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